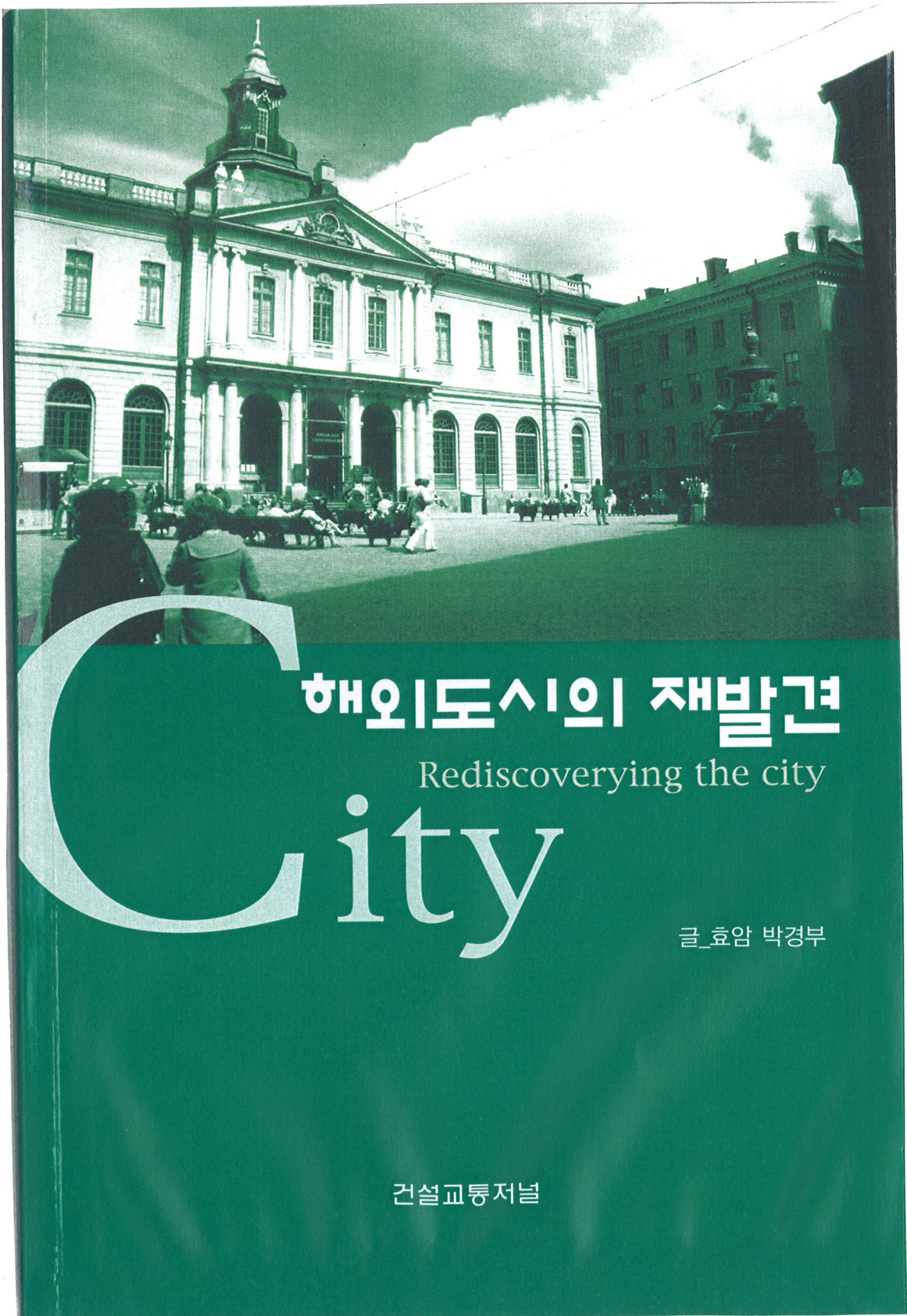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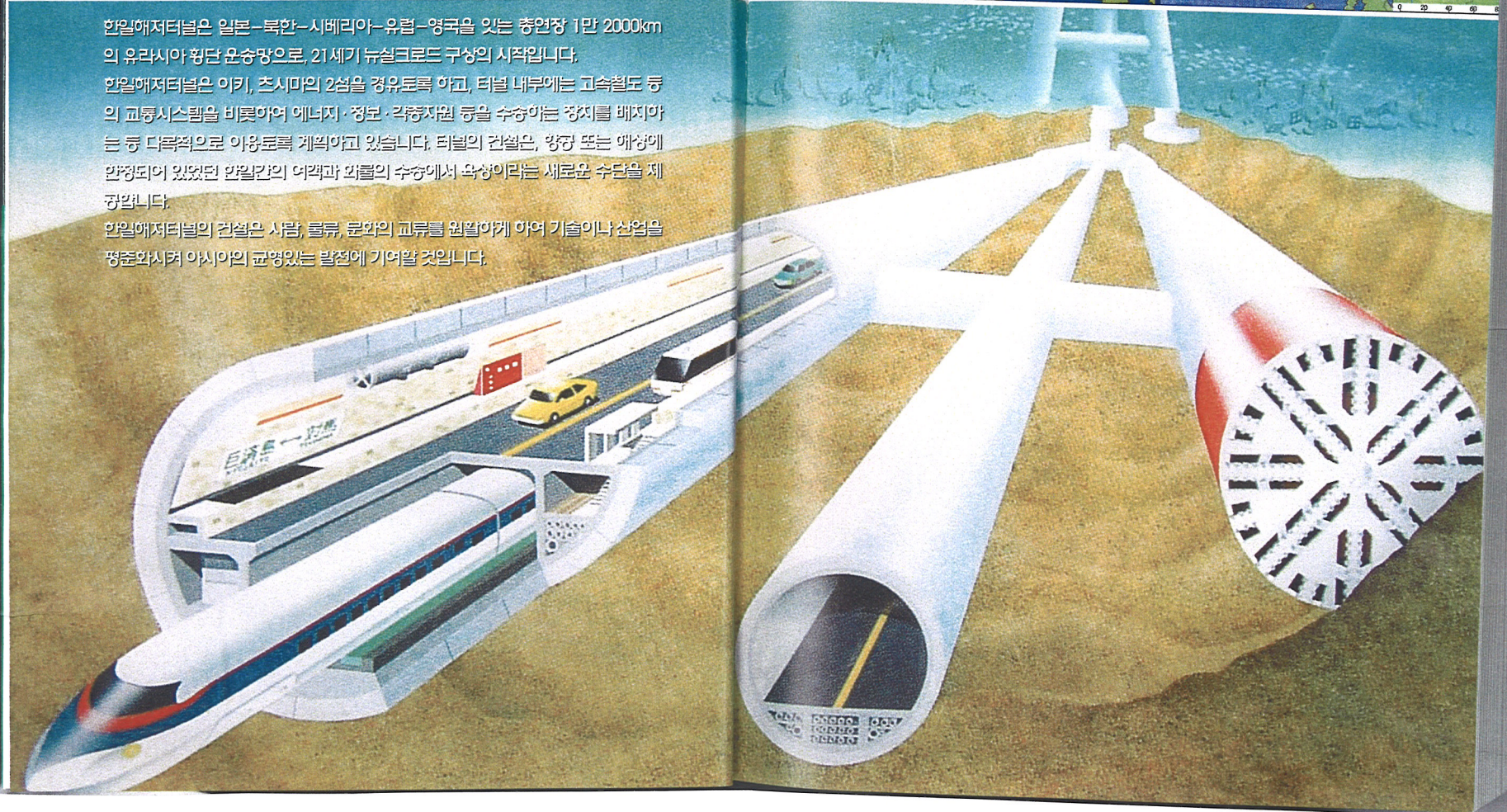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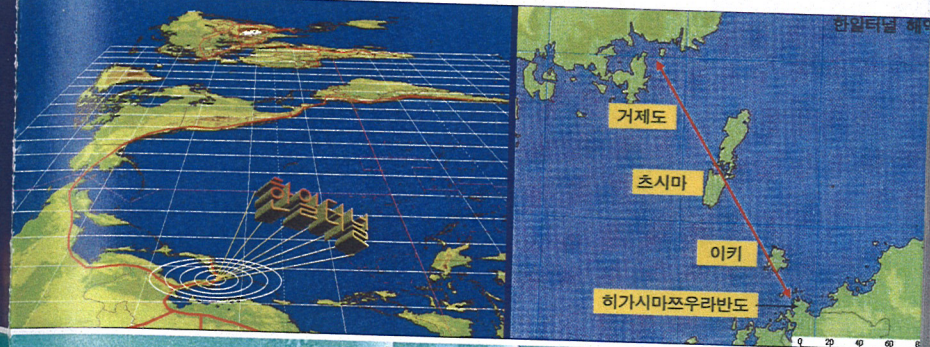




21세기의 꿈 한일해저터널 세계를 달려갑니다

한일해저터널은 일본-북한-시베리아-유럽-영국을 잇는 총연장 1만 2000km의 유라시아 횡단 운송망으로, 21세기 뉴실크로드 구상의 시작입니다. 한일해저터널은 이키, 츠시마의 2섬을 경유토록 하고, 터널 내부에는 고속철도 등의 교통시스템을 비롯하여 에너지·정보·각종자원 등을 수송하는 장치를 배치하는 등 다목적적으로 이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터널의 건설은, 항쟁 또는 애상에 한정되어 있었던 한일간의 여객과 외환의 수송에서 육상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제창합니다. 한일해저터널의 건설은 사람, 물류, 문화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여 기술이나 산업을 평준화시켜 아시아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방재관련 업무협의를 마치고

(2005.5.26 ~ 28)

필자는 일본토목학회 한국분회 회장으로서 '일본토목학회 통상총회'가 개최하는 가을 전국대회 등 2번에 걸쳐 일본에 간다. 금년에도 통상총회가 개최되는 5월 마지막 금요일인 27일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기 전에 지난 5월 23일 한국 방재협회 회장 선거에 당선되고 5월 21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회장 승인을 받고 5월 23일 정식으로 회장에 취임하였다.

그래서 이왕 일본에 가는 길에 방재관련자 인사와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 전국방재협회와 국토교통성 관련자, 진노우치(陣内) 회장, 세토(瀬戸) 부회장, 이시이(石井) 사무국장과 국토교통성 세이지(清治) 하천국장, 나카무라(中村) 방재과장 외 이와이(岩井) 부대신, 고사카(小坂) 고문, 와타나베(渡辺) 전 중국국장, 스토우(周藤) 토지정보회장 등의 인사를 김규춘 교통건설관과

방재관련 업무협의를 마치고 11

함께하는 일정 계획을 세웠다.

출국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기공 수련을 마치고 짐을 챙겨서 마을버스를 타고 사당역에서 지하철로 김포공항으로 갔다.

역시 김포에서 하네다 공항까지의 루트는 인천에서 나리타 공항까지의 루트보다 훨씬 편리하였다. 전날 한국방재학회가 주관한 ‘방재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건교부에 인사다니는 등 바빴으며, 선물을 준비하고 출국 준비하는데 바쁜 시간을 보낸 관계로 피로해있었다.

하네다 행 항공기에 타고, 방재협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공리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다 보니 일본 나고야와 해상 중부국제공항이 선명하게 보였다.

항공기는 태평양을 거쳐서 치바(千葉), 동경 상공을 선회하면서 하네다(羽田) 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선물 보따리와 가방을 혼자서 운반하기에는 벅했으나 어쩔도리가 없어서 전철역이 있는 터미널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전철로 시나가와(品川)에서 환승하여 메구로(目黒)역까지 가서 다시 지하철 남북선을 이용하여 롯본기(六本木) 일조메 역까지 갔다. 일·한터널연구소가 가깝게 있지만 선물 보따리 관계로 택시를 타고 연구소 사무실로 갔다.

이나다(稲田) 사무국장, 히라노(平野) 차장, 아마오카(山岡) 회장을 만나서 오는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에서 개최되는 ‘도로박람회’에 초대 강연하는 논문 설명 내용과 전시할 부스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자료가 다 되지 않아서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짐을 호텔에 갖다놓을 것을 부탁하고, 국토기술연구센타로 갔다.

나카야마(中山) 차장과 스즈키(鈴木), 김 연구원을 만나서 전날에 부탁한 지구 온난화에 관한 자료를 얻고 오이시(大石) 이사장을 예방하였다. 센타에서 가깝게 있는 전국방재협회를 방문하여 이시이(石井) 사무국장을 만나 방

해외도시의 재발견

초판 인쇄 / 2006년 3월 30일

초판 발행 / 2006년 4월 5일

지은이 / 효암 박경부

펴낸이 / 김상윤

펴낸곳 / (주)건설교통저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45-5

(건설진흥공단 빌딩 4층)

전화 3473-2842(대)

팩스 3473-7370

값 10,000원

海外都市の再発見 Rediscovering the city

21世紀の夢 日韓海底トンネル 世界を駆ける

日韓海底トンネルは、日本—北朝鮮—シベリア—ヨーロッパを結ぶ総延長1万2千Kmのユーラシア横断運送網で、21世紀のニューシルクロード構想の始点です。

日韓海底トンネルは、壱岐、対馬の2島を経由し、トンネル内部には高速鉄道などの交通システムをはじめとするエネルギー、情報、各種の資源などを輸送する装置を配置するなど、多目的に利用できるように計画されている。トンネルの建設は、航空または海上に限定されていた日韓間の旅客と貨物の輸送において陸上という新しい手段を提供する。

日韓海底トンネルの建設は、人、物流、文化の交流を円滑にし、技術や産業を平準化させ、アジアの均衡ある発展に寄与する。

防災関連業務協議を終えて（2005. 5. 26～28）

筆者は日本土木学会の韓国分会会長として「日本土木学会の通常総会」が開催される秋の全国大会など2回にわたり日本に行った。今年も通常総会が開催される5月最後の金曜日27日に参加のため日本に行く前、去る5月23日、韓国防災協会の会長選挙に当選し5月21日消防防災庁から会長承認を受け5月23日に正式に会長に就任した。

（中略）

航空機は太平洋を経て千葉、東京上空を旋回しながら羽田空港に無事に到着した。お土産の袋とかばんを一人で運ぶのは大儀だがどうすることもできず、電車の駅があるターミナルまで無料シャトルバスに乗り、電車で品川で乗り換えて目黒駅まで行き、再度地下鉄南北線を利用して六本木一丁目駅まで行った。日韓トンネル研究会が近くにあるが、お土産の袋の関係でタクシーに乗り研究会の事務所に行った。

稲田事務局長、平野次長、山岡会長に会い、来る7月7日から10日までイルサンで開催される「土木博覧会」に招待講演する論文の説明の内容と展示するブースについて議論し、資料がまだできていないため翌日の朝10時に再度会うことにして荷物をホテルに行き置いてくるよう依頼し、土木技術研究センターに行った。